

영혼의 기쁨



제공: WMM

햇빛 아래 소녀의 웃음이 더할 나위 없이 환하다. 허름한 티셔츠에 뚫린 커다란 구멍도 아랑곳없이 웃게 하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짐을 지고 산다. 이 짐을 지고 있는 영혼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오는 것은 잠시의 쾌락이나 즐거움은 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기쁨'이나 '완전한 만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죄로 인한 영혼의 무게를 벗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가 맛보는 이 기쁨! 이 한없는 영혼의 기쁨이 십자가 안에 있다. [GNPNEWS]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편 126: 1~3)

▶ 잠비아의 소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경남 지역 교회, 학생인권조례 부결 이끌어내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국내 교육 정책 책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동성애 조장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최근 부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경남도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로써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경남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물거품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권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전체 의원 58명 중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도 지역주민 다수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발휘 경우,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반동성애 전문 방송을 표방해온 khtv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 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이 같은 결론 도출에 주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매일경제를 통해 24일까지인 이번 회기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경남 지역 교회는 교회별 기도회와 함께 연합 가두시위, 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전화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GNPNEWS]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다니엘 11:32)

기도 |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터위에서 올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떨치는 세대로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0)

교회에 너무 빠질까 봐 걱정돼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쳐 사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



일러스트=김경선

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좋겠는데, 너무 빠져서 삶이 뒤죽박죽될까 봐 염려돼요.” 당신의 걱정과 우려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빠졌다’고 하는 표현 중에 ‘자연스런 열정’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연인들은 일주일에 8번의 만남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선물 한 번 안하던 아들이 여자 친구에게는 여러 핑계로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것을 누가 부작용이라 말하겠습니까? 당연한 열정인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는 시간이나 물질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빠졌냐는 것입니다. 마약, 알코올에 빠지면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술에 빠지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빠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되는 게 문제였지

너무 빠져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잘못 되던데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서 바치던데.”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잘못된 주장에 빠지면 가족이 파괴되고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야말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당신이 빠져도 좋은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은 당신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꿈꾸는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최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한 장씩 뜯어서 전하는 **전도편지**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킨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의소리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존 파이퍼 목사, “동성 간 결합은 결혼이 아니다”



▶ 존 파이퍼 목사(출처: desiringgod.org 캡처)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동성결혼’에 대한 팟캐스트 구독자의 질문에 동성결혼은 성경적으로 결혼 자체가 아니며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의 팟캐스트에 “동성결혼해 성관계까지 하는 동성부부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 동성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한 구독자의 질문에 그는 “동성 간 결합을 결혼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말했다. 동성 결합은 결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성 결합 관계에 있는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동성결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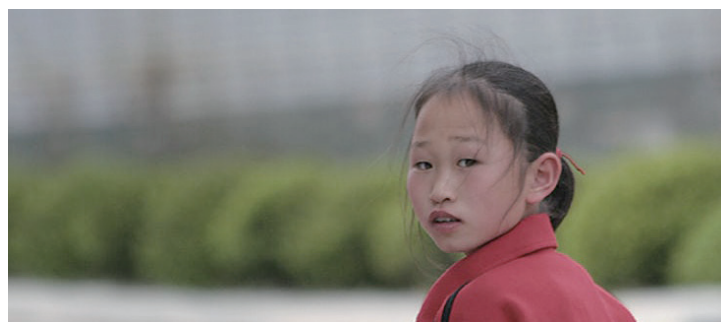
파이퍼 목사는 “두 남성 또는 두 여성이 함께 살아가고, 동성 성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걸 권하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이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불명예스럽다고 하셨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파이퍼 목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결혼 관계에 있는 이들의 간음에 대해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결혼이라고 하셨다.”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은 주 앞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원리가 동성 성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두 남성 또는 두 여성이 언약을 맺고 성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 자체가 아닌, 절대 있지 말았어야 할 그 결혼에 헌신할 수 없다.”면서 “두 남성과 두 여성 간의 결합은 동성결혼이 아니다. 그건 결혼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셨다. 그래서 동성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헌신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파이퍼 목사는 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불명예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을 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동성 성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 받았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회개하고 헌신해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직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명예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GNPNEWS]

“탈북 여성 60%, 中서 성노예로 팔려”

英 코리아미래계획, 탈북 여성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탈북 여성의 약 60%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의해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며 매매 규모가 연간 1억 달러(약 1193억 5000만 원)를 넘는다는 민간 보고서가 20일 영국에서 발표됐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미래계획(Korea Future Initiative)은 이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하고 탈북 여성들의 이 같은 상황은 북한과 중국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만 명의 북한 여성들과 18세 이하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매매로 인해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약 50%는 매춘업소에 팔려가며, 30% 이상은 강제 결혼, 15%는 사이버 섹



▶ 탈북 여성들과 소녀들이 성노예로 팔리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출처: opendoorsusa.org 캡처)

스 산업에 팔려가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 탈북여성 성매매 지하 시장의 규모는 연간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춘은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의 성매매의 주요 경로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중국 남성들로부터 강간, 강제 자위, 추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제 결혼

도 여전히 중국의 섹스 산업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소규모의 구출 기관들과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탈북 여성 구출작업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많은 희생자들이 중국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GNPNEWS]

복음과 기도로 안내하는 이스라엘 성지연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GPTI)는 2020년 1월 20일~2월 1일까지 복음과 기도로 안내하는 이스라엘 성지연수(聖地研修)를 떠난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들을 직접 살펴보고 지리를 통해

서 올바른 성경 이해를 갖고 이스라엘 메시아니즘교회를 방문하며 ‘그 땅(하에레츠)’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연수는 김명호 교수의 그 땅을 배경으로 한 정확한 성경해

석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단, 2019 GPTI 봄 특별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우선 자격이 주어지며 35명 선착순 마감. 문의 ☎ 010-6613-7647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 13 ~ 5. 25)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 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파키스탄서 500명 HIV 집단 감염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 400여 명과 성인 100명이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으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집단감염 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의사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주님, 갑작스럽게 에이즈에 걸린 파키스탄의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질병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국 앨라배마 주, 성폭행 낙태까지 금지하는 낙태금지법 통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강간(성폭행) 및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금지하고,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14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세상의 썩은 가치를 거슬러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미국 앨라배마 주를 축복해주세요

주님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한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용기 있게 걷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대만 ‘동성결혼법’ 통과, 5월 24일부터 시행

대만 국회가 지난 17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23일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이로써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24일부터 대만에서 동성 커플들이 정식으로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대만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대만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한국, ‘65% 상속세 폭탄’ 피해 이민행렬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2200명으로 2017년 825명 대비 2.7배 증가, 2008년 2293명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지 않은 한 이민 트렌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에 높은 세금으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과 같은 이들을 일으키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며 고난 중에 주를 만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6월 3일 ~ 6월 15일

6월 3일 ~ 6월 8일 ▶경기 수원 / 하늘꿈동산교회(이**)010-3737-3629,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광주 북구 / 십자가 사랑교회(김**)010-6280-4419, **6.3(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울산 중구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6.4(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6.4(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4-5(10~13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6.5(영덕지역연속기도)** ▶경북 영덕 / 영덕지역목회자연합(김**)010-5507-0198, **6.5(06시)~6(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6.7(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6.7(10시)~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그외 16교회 진행중.

6월 10일 ~ 6월 15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4501-0059, **6.10~14(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10~11, 14~15(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6.11(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11~14(09~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6.11, 6.14(10~12시)**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김**)010-6269-4821, **6.12(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6.13(11~13시)** ▶인천 연수 / 인천안도복교회(이**)010-4200-5237, **6.13(19:30~21시), 6.14(20~22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후진국형 질병 ‘A형 간염’, 동성애 행사 통해 급속히 확산

영국, “퀴어 행사 참가하려면 예방주사 맞고 가라” 권고



사진=현승혁

최근 본지 인터넷신문(4월 30일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A형 간염이 동성애자 행사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도 퀴어 행사와 간염 확산이 연결돼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이 적은 듯하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기고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이 칼럼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A형 간염 확산의 주된 원인은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적 접촉이라고 밝히면서 퀴어 행사에 의한 확산을 우려했다.”며 “우리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에 ‘간염 발생은 주로 유럽 지역 및 아메리카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를 게시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매해 열리는 동성애자 행사에서 A형 간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A형 간염은 주로 대변에서 입으로 감염되는 질환(대변-구강 오염, fecal-oral transmission)으로 분류된다. 세균 전파의 경로가 대변에서 출발해서 중간 매개체(손, 식수, 음식 등)를 통해 결국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계를 통해 세균이 이동하는 감염이기에 ‘대변-구강 전염’이라고 부른다. 정화조가 없어 대변 처리가 비위생적이고 불완전하던 시절 A형 간염은 쉽게 전파됐다. 그러나 상하수도가 생기고 비누가 상용화되며 대변처리가 정화조의 도입으로 거의 완벽해지면서 이질과 마

찬가지로 대변-구강 오염의 일종인 A형 간염은 많이 줄어들게 됐다. 그런데 최근 위생환경이 좋은 지역의 20~30대 남성들에게 A형 간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A형 간염환자의 항문에 닿은 손가락, 도구들 때문에 대변이 입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경로를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간염: 게이와 양성애자에 대한 정보(viral hepatitis: information for gay and bisexual)’라는 제목의 간염 예방 게시물을 통해 남성 간성관계 시 항문-구강의 직접적 경로를 통한 오염이나 혹은 성행위 시 오염된 손, (성)도구 등을 통한 A형 간염의 간접적 오염들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2017년 봄 영국 보건당국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 2일까지 영국에서 신규로 보고된 A



▶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게시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간염 감염에 대한 위험성 경고(출처: 미국 질병관리본부 캡처)

형 간염의 무려 7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었다. 영국은 A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미국 보건복지부의 로널드 장관은 미 연방정부의 에이즈에 관한 정보 공개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A형 간염 신규 감염자의 1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2014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건강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18세 이상 남성은 1.6%이고 양성애자는 0.7%로 합이 2.3%이다. 이중 남성 동성애자가 2% 미만으로 추정 가능한데 2% 미만의 사람들이 전체 A형 간염의 10%나 차지한다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A형 간염에 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스페인에서 보고된 A형 간염은 지난 5년 평균 발생률보다 8배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1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 동성애자에게 발생했다. 2017년 6월 12일, 데일리굿뉴스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A형 간염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칠레 등지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한 확산이 눈에 띈다.

한편, 영국 보건국은 마드리드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A형 간염 백신을 맞고 참여하라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보건국은 대변으로 오염된 음식물 등을 통해 전

염될 수 있지만 최근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경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통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MSM(Men who have Sex with Men)을 꼽았으며 이러한 우려는 런던에서 현실화 되었다고 발표했다. 영국 보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게이 행사인 월드프라이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현지(마드리드)에 백신이 부족하니 떠나기 전에 자국 내 클리닉에서 예방 백신을 맞고 가라고 꼼꼼히 알려 주고 있다. 이는 남성 동성애자 등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국 보건국은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사례다.

간염주사 맞고 가라는 행사는 퀴어 행사밖에 없어

김 대표는 “지구상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간염이 퍼져나가는 행사이니 간염주사 맞고 가라는 보건당국의 경고성 게시물까지 나온 행사는 단 하나, 퀴어 행사”라면서 “보건당국이 쏟아지고 있는 동성 간 성관계의 위험성을 직면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리고만 하거나, 또는 이러한 보건 의학적 통계를 발설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혐오자라고 매도하는 유아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은 결국 동성애자와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위협하다.”고 지적했다. [GNPNEWS]

“다운증후군 제노사이드를 막아주세요”

(집단학살)

아이슬란드에서 다운증후군 태아, 100% 낙태

아이슬란드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판명될 경우, 거의 100% 낙태되고 있다. 이같이 다운증후군의 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유엔(UN)에 다운증후군 아기들의 낙태를 멈추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청원에 최근 1만 4400여 명이 서명했다.

다운증후군 커뮤니티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우생학적인 이유로 낙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번 청원은 낙태를 반대하며 가족 공동체를 수호하는 생명 청원(Life Petition) 웹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운증후군 제노사이드’의 한 형태라고 불려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92%의 다운증후군 아동이 낙태되었고, 덴마크에서는 98%가, 아이슬란드에서는 거의 100%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 그룹의 전체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없애려는 필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청원은 좀 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유전적 조건들을 이유로 우생 낙태를 멈추는 것을 도와달라고 유엔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 회원국들의 인식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해 명시적으로 노력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포용적인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단지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유전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낙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막 설치된 OHCHR과 고등 판무관인 미셸 배츨렛(Michelle Bachelet)은 이 끔찍한 형태의 차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유엔 OHCHR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우생학적 낙태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유럽과 미국에서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태아 중 낙태되는 태아의 비율(출처: CBS News 유튜브 영상 캡처)

현재 미국 오하이오 주는 태아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유전자 검사에 기초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인디애나 주도 태아의 성별, 인종, 장애 또는 잠재적 장애에 기초하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 켄터키 주는 태아의 성별, 인종, 장애에 근거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최근에 통과시켰다. 노스다코타 주 역시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는 과거에나 행해지던 일”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유엔 OHCHR에 이 끔찍한 형태의 차별인 우생학적 낙태가 대중 문화와 회원국의 법률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창조 이야기(16)

기독교인들도 창조와 대홍수를 잘 모른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골로새서 1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 또, 성경은 사람이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고전 15:21~2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 5:12) 사람의 의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진화론은 죽음이 사람을 세상에 가져왔다고 가르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완전히 정반대다.

성경은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전 15:45). 그리고 그가 130세에 셋을 낳았고(창 5:3)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창 5:6). 성경을 보면서 연수를 다 더해 보면 창조는 약 6000년 전, 즉 기원전 4000년 전쯤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공룡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지구가 6000년 되었다면 그건 사실일 수 없다. 공룡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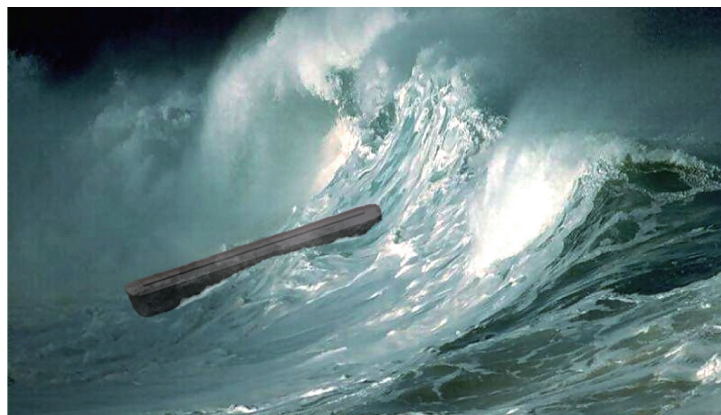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말씀한다.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한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벧후 3:3) 왜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과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자기들조차도 스스로 속아서 그런 줄 알겠지, 사실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성경을 비웃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이유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는다. 조롱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4)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 이 상태가 항상 있던 상태 그대로라고 말하며 균일설을 주장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다. "그들(조롱하는 자들이) 일부러 잊

으려(무지하려) 함이로다"(벧후 3:5) '일부러 무지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고의로 멍청하다'라는 뜻이다. 조롱하는 자들은 세 가지에 대해 고의로 멍청해진다.

조롱하는 자들의 무지함

첫째, "이는 하늘이(영문 성경에는 'heavens'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옛적부터 있는 것"(벧후 3:5)에 대하여 고의로 멍청하다.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는지에 대해 무지하다. 그 뒤에 나오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는 구절도 이상히 여긴다. 어떻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래 창조될 때의 모습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모든 분자들이 줄을 이뤘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그가 말씀하시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진다. 그가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가 말씀하시면 우주가 만들어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다만 우리 사람만 빼



▶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모형(출처: worldwidedlood.com 캡처)

고. 언젠가는 그것도 고치실 것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롬 14:11)

둘째, 진화론자들은 홍수에 대해 무지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벧후 3:6) 이 세상은 홍수로 파괴된 적이 있다.

셋째, 그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무지하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7)

조롱하는 자들은 창조에 대해 무지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들을 심판하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원래 창조가 어땠는지, 대홍수가 이 세상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다른 것으로 타협하게 됐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부활절을 최대 축제일로 지키는 에티오피아,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

에티오피아의 부활절 행사는 한국 교회보다 일주일 늦다. 부활주일 아침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거리가 아주 한산했다. 상점 문도 대부분 닫혀 있었다. 모두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에티오피아에서 금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가 공식적인 휴일이다. 이 나라 개신교회와 정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최대의 공휴일이자 축제일이다. 한 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호산나 일(日)이라고 칭하고 정교회는 축제를 벌인다.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 행사는 부활주일 45일 전부터 시작된다. 부활주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45일 전부터 금식이 시작된다. 금식 방식은 무슬림이 라마단 기간에 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한다. 개신교회는 철야하며 예배한다. 정교회는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모여 주일 새벽까지 예배와 행사를 하고 새벽 3시가 되면 닭요리



▶ 부활절을 기념하는 에티오피아 성도들(출처: rootsethiopia.org 캡처)

등을 먹는다. 아마 그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시간으로 추정할 것 같다. 부활주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45일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맘껏 먹는다. 교회에선 예수님의 탄신일보다 부활일을 더 큰 축제일로 삼는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가가 이 날을 공휴일로 인정한 것이 부럽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근거이며 소망이다.

그러나 이 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 외국인 기업들이다. 주일 저녁 늦게까지 먹고 마시느라 다음날 아침에 회사로 출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그 날의 생산성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이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인상을 찌푸리는 외국인 관리자들을 더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다. 오래된 외국인 관리자들은 마음을 접고 산다. 그 마음을 접을 때 교회에 대한 마음도 함께 접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주일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 못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을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죄로 물든 문화에 폭 빠

져 살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살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까먹는 모양이다.

또 다른 에티오피아의 모습이 있다. 정부는 지금 불법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을 색출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밀수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경찰을 엄청나게 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색출하고 잡아 가두고 있다. 얼마 전에 또 여러 공무원들을 잡아 감옥으로 보냈다. 암거래상과도 마찰이 있다. 법무부 장관은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불법 현상들은 점점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공항에 간 적이 있었다. 엄청 붐볐다.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이렇게 붐빈다고 한다.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라 사람들이다. 경제 상황과 달리 공항은 사람으로 붐비고 공항 확장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달러를 보유할 수 없다. 환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금액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달러가 없어 수입도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 올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이 많은 외제 차는 또 무엇일까? 암시장 아니면 답이 없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법을 만들면 국민은 대안을 세운다더니, 에티오피아가 딱 그런 모습이다. 보지도 듣지도 맛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생기는 욕구를 물리적으로 어찌 막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도록, 십자가를 따르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GNPNEWS]

에티오피아=정 다니엘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3대째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 6·25전쟁 후 50~60년대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의 삶을 가까이 보면서 자랐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기업 임원으로 살면서 80~90년대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굵직한 역풍이 불 때 TV뉴스에 등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책이라 해도 좋을 만큼 사건 많은 인생의 1막이 끝나고 나이 60에 인도에 파송되어 11년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수길·맹광숙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이수길 선교사(이하 이): “어머님이 성악을 하셨어요. 합창 영생여고, 이화전문학교 음대를 나오셨지요. 모두 크리스천 학교죠. 6·25전쟁이 끝나고 음악 선생님을 하셨는데 찬양단을 조직해서 미군부대 위문공연을 다니셨어요. 그때 숙명여고, 동덕여고 같은 학교들이 다 천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8군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 건물 짓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선교사님들도 집에 자주 초대하시고 사령관들도 많이 오셨죠. 선교사님들을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롤러스케이트, 초콜릿, 치즈, 양복... 그 당시 미군부대에서만 나오는 걸 많이 접했어요. 선교사님들 덕을 많이 봤죠. 그때가 50~60년대 초예요.”

-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셨네요.
이: “그런데 제 믿음은 별로였어요. 대학 때 교회와 멀어지고 사회에서 잘 나갔죠. 진급도 빨라서 40대 초반에 임원이 되는 바람에 신문에도 났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지내면서 한 달에 두어 번 교회에 가고 술 담배도 다 했어요. 얼마나 엉터리였나면, 기사가 예배 끝나고 데리러 오면 차 안에서 바로 담배를 폈어요. 씬팅이 되었으니까 안보이잖아요. 술도 보통 사람이 평생 먹을 걸 줘줄 때 다 마셨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와 멀어져
-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이: “그런데 90년대 말 금융위기(IMF)가 왔습니다. 큰 자회사가 17개 정도 됐는데 건설은 중동에서 망하고, 연달아 하나씩 쓰러졌죠. 그때 등기이사들이 몇 조(兆) 단위의 회사 빚보증을 썼는데, 대검찰청에서 연대책임을 물었어요. 제 개인변상만 1080억이었습니다. 회사가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변상할 수조차 없는 금액이어서 차라리 걱정도 안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재판을 한 4~5년 했는데, 저는 은혜로 무죄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난 이수길·맹광숙 선교사 부부

판결을 받았어요.”

- 역시 고난이 유익이네요.

이: “그때까지 그런 상황이 크게 고난이라고는 생각이 안됐어요. 제게 가장 큰 고난은 2004년에 딸이 둘째 아이를 잃었을 때예요. 심장이 없이 태어나 1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사위와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때 딸은 인도 선교사로 나간 지 7년째였는데,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온 건지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 사모님은 어떠셨나요?

맹광숙 선교사(이하 맹): “저희 부부가 74년에 결혼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기독교 율타리에서 지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기독교 집안과 만나 결혼한 건 은혜였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어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30대 후반부터 여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남편이 직장문제로 구치소에 간 일이었어요.”

경제사범으로 구치소에 가다

- IMF 체제 당시 일인가요?

맹: “그전의 일이에요. 89년 무렵이었어요.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남편의 회사가 표적이 돼서 수사도중에 10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혔죠. 그게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맞아요. 그때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죠. 감방장이 전과 12범

이었는데 제가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경제사범인 제가 TV에 등장하다보니 구치소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그랬죠. 사형수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영치금이나 물품을 넣어주면 다 나눠줬어요. 저는 미결수라 구치소 내 교회에 못 갔지만, 주일예배를 권했는데 그들은 가더군요. 감방장은 나중에 출소해서 신학대에 갔어요. 그 무렵 제가 돕기도 했는데, 그는 결국 목사가 됐어요. 전 사실 그 기간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맹: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 곳은 범죄자만 가는 곳인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충격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바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렇게 당당하시던 시어머님도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계시던 상황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아프시다 돌아가신 후였어요. 너무 큰 아픔이 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학교 교사였는데 퇴근 후 금요철야에 가고, 성경필사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주셨어요. 딸이 제게 ‘엄마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죠. 그 사이 40대가 되었고, 어느 날 20살이 된 딸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기대했던 딸이 헌신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 두 분 다 어려우셨겠네요.

이: “전 괜찮았어요. 아이를 신뢰했으니까 오케이 했지요.”

맹: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던 우리는 어린 딸을 통해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됐어요. 결국 축복하고 인도로 보낸 딸이 선교사와 결

혼하고, 아들도 누나처럼 변하고 싶으면서 인도로 따라갔어요. 딸이 ‘엄마도 보내는 선교사예요’라고 했을 때 저는 ‘NO’라고 했어요. 너 하나로 족하다, 나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크리스천 가정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50대가 되고, 두 번째 고난 IMF가 닥쳤어요.”

- 그 고난은 어떤 의미였나요?

맹: “제게 재정적 고난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가산이 전부 날아가고... 그리고 딸의 둘째 아이가 떠났어요. 재산이 없어져도 버티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절망이 허락된 거죠.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건, 부모로서 정말 어려웠어요. 기독상담을 배우고, 훈련단체에 한동안 집을 통째로 내주기도 하고, 10년 동안 해외파송 한국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한 선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딸이 ‘아빠, 노력으로 안돼요. 하나님께 앞드려야 해요’라고 했을 때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노력이 아닌 은혜가 필요한 때가 그때였어요. 믿음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때 제주도로 6개월 제자훈련과정을 가게 됐어요.”



- 이 선교사님도 그런 간절함으로 가셨나요?

예기치 않은 선교사의 길

이: “저는 딸이 부탁을 해서 갔어요. 아이를 잃은 딸을 위로할 수 있다면 뭐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자훈련이 뭔지도 몰랐고, 제주도에 와서 여행도 하고 주일에는 서울에 와서 일도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지요(웃음). 제주도에 와서 둘이 아주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때 복음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6개월 후 교회에 돌아왔더니 선교사 되려고 훈련받고 왔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요.”

맹: “끝없는 다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005년에 훈련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재정이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막하고 소망이 없었죠. 그럴 때 딸이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이: “입양을 위해 딸과 사위가 인도에서 나왔는데, 태어난 지 한 달된 그 아기가 천사 같았어요. 우리 부부가 손주들 봐주려 6개월 정도 인도에 갔는데, 벵골에서 6주 동안 리더훈련도 받았어요. 저는 MK(선교사자녀) 아기돌봄이를 했는데 거기서 잘 놀았지요(웃음). 식사로 풀빵 같은 것 하나에 늘 같은 음식이 6주 동안 나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평생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선교사까지는 생각 안했어요.”

- 그런데 어떻게 인도에 갈 결심을 하셨나요?

이: “10년 동안 섬기던 선교회의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인도와 몽골에 선교사를 보낼 마음을 주셨다고 말이지요. 우리가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선교자금도 약속했어요.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고 파송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고 나갔어요. 인도에 딸 옆집도 계약했어요. 그게 2008년이네요. 그런데 영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인도에 간지 2~3개월 만에 딸과 사위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선교헌금도 줄어들더니 고

작 3개월 만에 소리 없이 끊어졌어요. 헌금을 약속했던 교회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불황이 닥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같은 녀석이 그냥 선교사 나가라고 했으면 갔겠느냐? 그 돈을 믿고 나간 거지’(웃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 이후로 정말 드라마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GNPNEWS]

E.J.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영원한 사랑의 복음 (4)

“사랑을 빼앗긴 교회는 괴물이 된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정확하다. 바로 교회의 사랑을 빼앗고, 더럽히고, 비웃는 것이다. 500년 전 중세(中世) 교회는 재력, 건물, 권세, 화려한 의식(儀式) 등을 흐드러지게 소유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내던지고, 사탄에게 사랑을 빼앗긴 결과 중세를 암흑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되어 버렸다.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혁명들과 시대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중세의 온 세상을 흑암으로 몰아넣었던 교회의 타락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 의식(儀式), 화려한 건물, 치밀한 신학이 있었어도 사랑을 빼앗기면 교회는 괴물이 된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지켜줄 만큼 이를 증거하고 있다.

한 때 개혁의 ‘주체’가 되어 잔인하게 아합 가문을 멸절했던 예후는 나중에 도리어 자신이 개혁의



일러스트=노주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역사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정의’와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랑 없는 개혁은 결국 ‘자아의 탐욕’이라는 미

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사랑’을 상실한 채 변형되고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시도하는 개혁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분노, 집단 광기, 잔인함, 오만함으로 이끌 뿐

이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의 불길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개혁이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교회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교리적 진리는 회복했지만 진리의 생명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유산으로 가졌어도 영혼 없는 신학, 바리새인적인 의식, 생명 없는 종교적 의식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도 지금 서구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빼만 앙상하게 남았다. 한국교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위기 앞에서 있다.

복음은 결코 죽은 이론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시다. 오늘날 지성주의에 오염된 자들이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멋진 사변적(思辨的)인 복음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기도 바쁜 위기의 때에 복음을 지식으로만 추구하는 헛된 시도와 기대와 망상은 버려야 한다.

공격에 대한 대안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밀어낸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지혜도, 어떤 방법도 속임이며 미친 짓일 뿐이다. 중세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시대적 위기, 교회적 위기, 영적 전쟁의 위기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2017년 5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6)

“야콥”(יַעֲקֹב)에서 “이스라엘”(יִשְׂרָאֵל)로, 존재의 변화



“이스라엘(יִשְׂרָאֵל)”이란 이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렵다. 그 사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개역 성경 번역의 경우, 성경 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콥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문제는 “יַעֲקֹב(야콥)”이란 히브리어 단어이다. 우선 히브리 텍스트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עַם-אֱלֹהִים וְעַם-אֲנָשִׁים כִּי-אֵם-יִשְׂרָאֵל כִּי-שָׂרִיתָ לֹא-יַעֲקֹב יִאָּמַר עוֹד שְׁמֶךָ יַעֲקֹב (네 이름을 다시는 야콥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힘이 있었음이니라) 히브리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יַעֲקֹב(야콥)”이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TaNaK)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 “For thou hast striven with God and with men, and hast prevailed”(JPS) ‘이겼다(overcome)’는 말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יַעֲקֹב(야콥)”은 그 어원이 히브리어로 “יָצַל(야칼)” ‘능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유대인 영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우세했다(prevalled, 참조. KJV)’로 해석했다.

둘째로,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싸워) 이긴 존재가 지금까지 없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시 129:1~2) 또 많은 사람들(복수)과 야콥이 싸워 이긴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고대 역본과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יִשְׂרָאֵל)”을 문자 그대로 받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람과 힘을 겨루어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영적인 의미로 말이다. 사람과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불쌍한 인생이요 반대로 하나님과 겨루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즉 인생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앞에 나아가 부복하며 신적인 설득(God’s persuasion)을 당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다.

셋째로, “이스라엘(יִשְׂרָאֵל)”이란 이름 속에 들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 어간 ‘겨루다, 다투다, 싸우다’(to strive)는 의미를 지닌, “שָׂרָה(sarah)”는 “אֵל(엘, 하나님)”과 합쳐져 사용되는데 간접 목적어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의 주체가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로 해석되어야지 ‘그(야콥) 하나님과 싸우다’로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다’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증거는 호세아 12장 3~4절에서 나타난다.

“야콥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וּבְאִזְנוֹ שָׂרָה אֶת אֱלֹהִים (and by his strength he had power with God)” “and by his strength he had overpower God(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다)”가 아니다.


유대인 성경 타나히 호세아 12장 3절에 나타난 중요한 히브리어 “אֶת(에트)”를 직접 목적어(하나님을)로 해석하지 않고 전치사 “with(함께)”로 해석함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다는 말인가!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제4차 신학강좌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참 예언(豫言), 참 선지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의 대언(代言)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과연 그 소리가 당신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참 예언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 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텍스트(Text) 자체가 말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 구분을 예리하게 가르치는 네 번째 신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비추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김명호
(헤브론선교대학교 구약학 교수)





누가의 예언자 사역 이야기: 고난에도 예언자 사역으로
김광모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지하1층 비전홀
2019.6.11(화) 오전10시~오후4시

등록 6월 3일까지 (선착순)
등록비 1만 5천원 / 추가 및 현장접수 2만원
입금계좌 462602-04-281902(국민. 심호숙)
문의 및 접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 010-6613-7647, 010-5640-5691
제 4차 신학강좌 강의안, 중식제공

주최 

주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이면 충분하다”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의 싸움이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편집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력

아들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들이 7살 때였다. 아들은 안경을 쓴 시력조차 0.3밖에 나오지 않았다. 너무 절망스러웠다. 안경을 쓰고 정기적으로 검안을 통해 조금씩 교정시력을 올리기를 시작했다. 그날은 시력의 변화가 크게 없어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나도 찾지 못한 남편을 발견하고는 ‘아빠 저기 있다!’하면서 기뻐했다.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 아빠를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이면 충분하지. 하나님 아빠를 발견할 수 있는 시력!’ 그리고 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

에게 아빠를 발견하는 시력을 주신 주님이 내게도 그 시력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한다. (고상미, 충남 당진시)

속에서 불이 날 때, 말씀이 소화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유독 어려운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다. 예의와 버릇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할 때면 속에서 불이 난다. 처음엔 아이들을 위해 기도도 하며 주님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이 어려울 땐 기도도 하지 못했다. 어느 때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싫었다. 그러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았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고, 끝없이 참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주셨다. 내게 이 아이들을 향한 긍휼이 없는 것을 회개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난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나를 끝없이 참아

주시고 끝내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했다. 간구할 마음조차 잃어버렸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김보라, 충남 서산시)

원수를 사랑하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다짐했다. 그러나 이사한 첫날부터 그 생각은 물거품이 됐다. 주인집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우리 부부는 차마 같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주인집 영혼들을 품지 못하는 나 자



일러스트=고은선

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생각해 봤다. 용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다. 얼마 전 지인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한 없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바다의 넓은 아량을 느끼면서 나도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했다. (소태순, 서울시 금천구) [GNPNEWS]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 탈북 막기 위해 국경지역 경계 대폭 강화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이 최근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 경계를 크게 강화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최근 수량이 줄어 강폭이 좁아진 강을 건너려는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적극 차단하려는 내부 지시가 국경경비대에 하달됐다. 이에 따라 국경지역에서 주민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국경경비대에 대한 불시 검열과 간부 인사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국경통제 조치는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공안에 붙잡혀 복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또 상당수 주민들이 국경경비대와 연계된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결행하는 요소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국경경비대 간부들이 탈

북 브로커나 밀수꾼들과 결탁해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검열성원들이 파견돼, 소대장 이상 간부들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제기된 대상들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대대적인 간부 인사 이동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했다. 이번 국경경비대 군관들과 군인들에 대한 검열은 그동안과 달리, 상당히 강도 높은 검열과 인사이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경비대에 대한 검열과 기강 세우기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겠는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시로 압록 강가에 나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주민들이 강가에 접근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 또한 보따리(소규모) 밀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도 국경 접근이 차단되면서부터 밀무역도 대부분 중단되었고 밀수꾼들은 국경 통제가 오래 지속되면 생계 수단이 막힐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2019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모집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 모집 대상

· 2019년 현재 4학년(2009년생), 6학년(2007년생), 8학년(2005년생), 10학년(2002~2003년생)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학을 희망하는 사람.

2.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 접수 기간: 2019년 7월 6일(토)부터 ~ 2019년 7월 29일(월) 소인까지
·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아래 문의처 확인)

3. 입학설명회

· 2019년 7월 6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19.6.10(월)부터 ~ 2019.6.29(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외 거주 학생의 경우 개별 문의 바랍니다).

4.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19년 8월 3일) · 2차 면접 및 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019년 8월 17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년 9월 3일(화) 입학식

5. 문의 및 접수처

010-8344-1718, 010-5346-4642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hebronschool@hanmail.net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2019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초 6학년~고 3학년 연령의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7.1(월)~4(목)까지 3박4일간 개최합니다. 묵상과 복음 강의, 복음 스킷, 기도회 소그룹 모임의 형태로 헤브론원형학교(충남 서산)에서 진행될 이 캠프 참여 희망자는 5.20(월)~6.7(금)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원서는 홈페이지 (www.theschoolhebron.org)를 통해 다운로드 하여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회비 10만원 문의: 010-2461-1718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마틴 로이드 존스 <위로>

하늘의 위로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지음 | 정상윤 옮김 |
복있는사람 | 172p | 2014

복음을 만나기 전 나는 평화주의자였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Peace maker)'라기보다는 평화 자체를 사랑하는 '피스 러버(Peace lover)'였다. 큰 소리나 잡음이 싫었고, 관계 안에서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맞춰주

는 쪽을 선택하곤 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 소극적으로 피할 수도 없어 평화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주님 수준의 평안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의 배경도 동일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전 세계에는 경제적·정치적·국가적·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고, 핵무기로 서로 공격받을 수 있는 위기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는 바로 이때,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요한복음 14장을 근거로 여덟 편의 설교를 전했다.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위로'다.

사람들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들을 향해 두려움과 대면하라고 한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로 나오라고 외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한다.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있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의존적으로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근심거리였다. 그들 중심에는 메시야가 유다를 회복하고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도 있던 터였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말씀하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일, 즉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위기와 상황에

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다.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이다. 더욱 굉장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앞에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관계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을 믿는 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기와 고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는다. 그뿐 아니라 고난 가

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능력을 입게 된다.

질병, 죽음, 전쟁, 핍박 등,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과 죄악 된 일이 많다. 최근 암 투병 중인 지체와 임종을 준비하는 지체의 소식으로 근심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망 앞에서 당당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해 못하는 영원을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 감격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끝은 우리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온다. 이 일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육신으로 왔다가 떠나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올리는 기도로 선교 완성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주님을 고대한다.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마침내 남편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다

남편이 어질러 놓은 과자봉지와 옷가지를 치우며 마음으로 남편을 공격하는 내 모습을 본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진리의 모습인데 집에서 어쩔 이리 다를까 생각했다. 남편과 22년을 살았다. 그런데도 남편을 향한 내 마음은 늘 이렇다.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

주말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공을 차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집을 나선다. 그럴 때마다 남편을 향한 미움이 올라온다. 그날도 남편은 공을 차기 위해 집을 나섰다. 특히 그날은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진행된 기도모임 때문에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때였다. 내심 주말에는 아들과 교제를 해주기 바랐지만 남편은 또 나간다고 했다. 미움이 올라왔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아빠랑 공을 차러 가겠다고 말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미움이 싹 사라졌다.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했다.

돌아온 남편과 내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정을 돌보거나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았던 어려움들도 얘기하게 됐다. 그러다 다름으로 이어졌다. 아들이 중재를 했음에도 싸움은 그치지 못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한 주 동안 이어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남편이 나의 권위자인지, 남편이 나의 머리가 맞는지 묻기 시작하셨다. 기도회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기억났다. 나의 태도였다. 어느 때는 남편이 너무 좋지만 어느 때는 너무 미워하는 이런

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려진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있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이렇게 사는데요.'

주님은 22년 동안 남편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쏟아부었던 나의 분노와 정죄를 주마등갈

깨닫게 되었다. 걸음으로 나타나는 온순함이 남편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끝내는 나를 위한 나의 사랑임을 알게 하셨다. 주님께도 동일했다. 나의 원함에 맞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주님을 원수 보듯하고 미워했다.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맘을 열지 않았던 것같이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말려드리지 않고 불안해하며 내가 주인되어 살고자 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부끄럽고 죄송했다.

남편이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이런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22년이 지난 이제야 남편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진다.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다. 나에게 남편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로 연합하는 기쁨도 알아가게 하신다. 이런 나를 남편은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었다. 주님은 남편을 통해 믿음 없는 나에게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GNPNEWS]

이현경



나의 마음이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주님은 그것을 비추임 받고서도 여전히 남편이 내 원함대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셨다. 실상 말로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한다면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남

이 기억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 나는 진리를 이용해 상대를 판단하고 있었다. 맞으면 높이고 아니면 분노의 칼을 갈았다. 머리 된 남편에게 행했던 모습이 동일하게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한 태도였던 것을 그제야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5. 3 ~ 5. 22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인숙 강주선 고은영 권순호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정대 박상기 박성규 송경순 안민자 유국주 이경행 이동희 이미영 이삼연 이준진 이현희 정효진 조상국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산곡교회 새순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운누리교회 하원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